나눔과 연대의 광주, 자원봉사 선도한다

광주시 2019 자원봉사자 대회
유공자 37명·1214명 인증서
9700명 '온라인 플랫폼' 이용
참여자 전년비 5.2% 증가

'나눔과 연대의 도시' 광주시가 자원봉사 선도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자원봉사 참여자가 늘어나고 있는데다,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 대회' 등 세계적인 메가 스포츠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치러내면서 자원봉사자들의 역량도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도입한 인공지능(AI) 기반 '광주형 자원봉사 온라인 플랫폼' 을 이용하는 자원봉사자가 9700여 명에 이르고 있다.

자원봉사 온라인 플랫폼은 봉사를 원하는 자원봉사자에게 꼭 맞는 일감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 정보를 제공하고, 수요처에서는 원하는 자원봉사자를 선정할 수 있는 양방향 플랫폼이다.

그동안 자원봉사 수요처와 공급자 간 정보의 비대칭으로 자원봉사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었던 문제점을 '광주형 자원봉사 온라인 플랫폼'이 해결하고 있는 셈이다.

이를 통해 지난 11월 말 기준으로 자원봉사 활동인원은 76만 105명으로, 지난해 72만 2422명보다 5.2% 증가했다.

광주 자원봉사자들의 역량도 한층 강화되면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올해 열린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세계 메가 스포츠 개최도시라는 타이틀을 가지게 됐다.

특히 폭염 등 열악한 상황에서도 경기장 곳곳의 질서유지와 환경 정화, 안내 등의 봉사활동을 했던 4000여 명의 자원봉사자와 1만2000여 명의 시민서포터즈의 활약은 당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같은 노력 덕에 지난 10월에는 지방의 우수 자원봉사 정책을 발굴하고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서 광주시와 광산구가 각각 '우수상'과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광주 자원봉사 시책의 우수성을 알렸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한 해를 결산하고 그동안 적극적으로 참여해온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2019 자원봉사자대회'를 개최했다.

'자원봉사자대회'는 나눔과 연대의 광주정신을 실천한 자원봉사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세계자원봉사자의 날(12월5일)을 기념해 매년 12월 첫째 주에 개최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시·구 자원봉사자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 주요활동상황 보고', 유공자 표창, 영예인증서 수여, 축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유공자 표창은 부덕임 (사)솔잎쉼터 이사장이 대통령 표창을, 전순환 손끝사랑봉사단 팀장, 주재환 광주사랑나눔공동체 대표, 양화자 원불교봉공회광주전남교구봉공회장이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 등 37명이 우수자원봉사자로 수상했다.

봉사활동 누적시간에 따라 영예를 부여하는 '자원봉사 영예인증서 수여식'에서는 총 1214명이 인증을 받았다.

영예인증서를 받은 자원봉사자에게는 5만2000원 상당의 교통카드 지급, 문화예술 공연초대, 국내외 연수기회 제공, 시 운영 체육시설 및 공용주차장 감면, 자원봉사자 할인 가맹점 이용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오늘은 우리가 명예역장" 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 윤진보)는 최근 광주시 동구 소태역에서 조하유치원 어린이 44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일일명예역장 위촉 행사'를 가졌다. 명예역장으로 위촉된 어린이들은 역사 시설물 점검, 승객 안내 등 역무원 업무 체험을 하고, 용산차량기지 견학 등 체험도 했다.

북구, 100여명 참석 '사회적경제 한마당'

사회적경제 가치 공유…협동조합 등 3개 기업 표창

광주시 북구는 사회적경제 가치를 공유하는 '2019 사회적경제 한마당'을 연다.

북구는 9일 오후 3시부터 북구청 3층 회의실에서 사회적경제 기업 관계자, 활동가 등 100여명이 참석해 '2019 사회적경제 한마당'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사회적경제 기업 간 교류와 소통을 통해 사회적경제의 가치 공유 및 발전방향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3개 기업에 표창패가 주어진다. 이어 '사회적협동조합 살림', '광주북구사회적경제연합회', 자활기업 전문가 등 사회적경제 활동가들이 참여해 '사회적경제 이제는 질적 성장'이란 주제로 사회적경제 기업의 역할,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속가능한 성장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토론회가 끝난 후에는 사회적경제 기업 임직원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모든 참여자들이 회사 홍보, 우수기업 수상소감, 사업제안, 건의사항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시간도 갖는다.

북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적경제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해 서민들의 자립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 각화도매시장

우수농산물 유치 '총력'

광주시 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는 광주원예농협공판장, 광주중앙청과(주) 등 도매시장 법인과 합동으로 산지 출하 유치 홍보에 나섰다.

관리사무소는 지난 5일 광주원예농협공판장과 장성 삼서거봉출하협의회를 진행한 데 이어, 6일에는 광주중앙청과(주)와 담양 무정딸기작목반과 생산농가를 방문해 애로사항을 듣고 출하농가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오는 13일에는 벌교 토마토·오이 영농조합을 찾아 농산물 유치 관련 협의를 할 예정이다.

이상협 관리소장은 "최근 경기가 좋지 않아 농산물 유통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도매시장 유통거래를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도매시장 법인들과 함께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

동구 '행복한 아빠교실' 광주시 동구 산수동 푸른마을공동센터 다목적실에서 지난 7일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를 위한 일·가정 양립사업 행사의 하나로 '행복한 아빠교실'이 열렸다. 이날 60여명의 참가자들은 자녀들과 철사모형 만들기, 골드버그와 움직이는 기어만들기 등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글로벌모터스 출범·친환경차 부품인증센터 유치 성과 공유 광주 자동차인의 날 행사

광주시는 지난 6일 홀리데이인호텔에서 광주 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및 소통을 위한 '2019 광주 자동차인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광주 자동차인의 날 행사는 자동차산업 발전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산학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이용섭 시장을 비롯해 김동찬 광주시의회 의장, 박광태 ㈜광주글로벌모터스 대표, 김재열 한국자동차공학회 광주·호남지회장, 부품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올해 광주시가 자동차산업분야에서 거둔 굵직한 성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목표를 다짐했다.

광주시는 올해 숙원사업이었던 광주형 일자리를 현실화하기 위해 ㈜광주글로벌모터스를 설립하고 일자리 창출에 시동을 걸었다. 지난 9월23일 설립된 완성차 법인은 올해 내 공장 착공을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자동차를 양산할 예정이다.

또 국내 유일의 친환경자동차 부품인증센터를 유치하면서 지역에서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국가공인이 가능해져 광주가 친환경자동차 부품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 밖에도 3030억원 규모의 '친환경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지역 부품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인 '부품업체 역량강화 지원사업' 등을 추진해 부품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광주시는 이 같은 성과를 거두기까지 지역 자동차산업 발전에 기여한 기업 및 유관기관 유공자 10명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과 광주시장 표창 등을 수여했다.

산업부장관 표창은 광주글로벌모터스 설립 투자환경 조성 공로를 인정받은 지금강㈜ 김식 대표를 비롯한 3명이 받았다. 광주시장 표창은 ▲노면청소로봇을 국내 최초로 개발한 ㈜드림씨엔지 송찬금 대표 ▲자동차 경량화 기술개발에 성공한 ㈜호원 이상헌 팀장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플랫폼 핵심기술을 확보한 ㈜조인트리 김흥중 대표 등 7명이 수상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DJ센터·사회적기업협의회 사회적경제 활성화 협약

광주시 산하 김대중컨벤션센터는 최근 사회적경제활성화를 위해 광주사회혁신플랫폼, 광주사회적기업협의회와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사진〉

이들 기관은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역경제의 선순환 모델 개발에 협력키로 했다.

김대중컨벤션센터는 지난 7일~8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대구·경북·전남 사회적경제기업 초청 교류전도 열었다. 교류전에는 대구경북 지역 사회적기업 6개사를 포함한 30여개 기업이 참가해 지역별 대표 사회적경제제품을 홍보했다.

대구경북지역 참가자들이 다향어울림협동조합 등 광주의 우수 사회적경제기업을 탐방하고 체험하는 행사도 가졌다.

김대중컨벤션센터 정종태 사장은 "김대중컨벤션센터의 특성을 살린 사회적경제 활성화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더욱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고 영호남 문화경제교류와 화합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